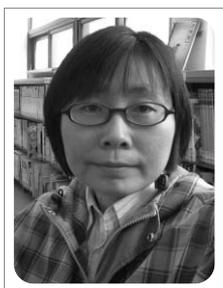


특 집 | 사서들이 꿈꾸는 도서관

도서관과 사서라는 이름의 회복



정 문 화*

내가 사서로 일하고 있는 도서관은 한 공간 안에 어른들이 보는 책, 아이들이 보는 책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며 그나마다 공간을 일정 부분 떼어 강의실 두 개가 자리하고 있다. 관장이나 행정, 회계 사무를 따로 보는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인 사서 체제인데 함께 일하는 실무자 또 한 사람은 사회교육 담당이라고 해서 주로 일상적인 강좌 운영을 관리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도서관은 재래시장 바로 옆, 민원센터 2층에 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길목에 있다 보니 문턱이 아주 낮고 특별히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도서관을 꾸준히 다니는 단골 회원들은 거의 매일 얼굴을 보는 편이다. 딱히 도서관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불일이 있어 시장을 통과하다가 장바구니를 든 여러 회원들과 마주치기 다반사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도서관 출입을 한 아이들, 등에 업혀 오는 업둥이들, 아장 아장 제 힘으로 걸어보겠다는 서너살박이들부터 잠시도 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뛰어다녀야만 되는 초등학생들까지...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 시기와 그에 걸맞는 삶의 방식들을 가지는지 신기

* 창원 가음정마을도서관 사서, torres15@hanmail.net



할 따름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마다, 그 독특한 생애 주기와 생활 문화 차이에서 오는 다양함들이 도서관에 와서 저마다 목소리를 높일 때 사람에게 대한 이해와 관심이 사서인 내게 무척이나 요구되는 사항임을 절감하곤 한다.

도서관이 도서관 되기 위해

1998년 개관 당시부터 작년 까지 창원시로부터 지원받는 도서관구입비는 한 달에 30만원이었다. 근 8년 만에 도서관구입비가 10만원 인상되어 올해 1월부터 40만원이 되었다. 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익금 중 매달 20만원씩을 올해 3월부터 도서관구입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에서부터 어른들의 기호까지 두루 두루 구색을 갖춰야 하다 보니 없는 살림에 늘 계산기를 두드리고 주문서를 만지작거린다. 어디서 책벼락이라도 좀 떨어져서 맞았으면 좋겠다 싶어 2004년 제 1회 책벼락 잔치라고 책전시 및 기증후원 행사를 벌였는데 2회에 500만원 가량의 책벼락을 맞긴 했다. 우리로서는 큰 금액이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허기

일단은 도서관에 책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쏟아지는 새책들과 이미 오래 전 출판되었지만 우리 도서관에 없는 좋은 책들에 대한 욕심이 날마다 나를 들쭉꾸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운명이다. 조금씩 조금씩 늘 한정된 금액에 맞게 책을 구입하여 분류, 등록을 하다보니 늘 조금만 더... 하는 허기에 시달린다.

책도 사람처럼 무언의 말을 한다. 정물 같은 포즈로 이야기할 뿐이지 그들에게도 엄연히 도서관의 일원으로서의 생각과 삶이 있다. 필요한 책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사람에게도 무척 큰 것처럼 그런 사람의 손길이 닿았을 때의 책 또한 다시 살아나는 흥분과 생기가 왜 없을까! 사서는 그러한 만남을 중재하고 이어주는 메신저로서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오늘의 도서관은 더 많은 기능과 역할들을 요구받고 있다. 특별히 이 시대

아이들이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원과 사교육의 틈바구니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처럼 도서관 또한 본질적이며 우선적 사명보다 시대의 유행과 흐름에 좇아야 하는 것이 현실의 세태이다. 아이들이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야 하는 것처럼 도서관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물론 그 권리는 도서관만의 권리가 아니라 그런 도서관의 권리를 통해 사람들의 도서관적 권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자유를 꿈꾸게 되다.

도서관에 실제 사서가 되어 일해 보기 전에는 도서관이라면 사서가 다인 줄 알았다. 사람들이 흔히 도서관에 가보고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는 지점도 열람실 데스크에 앉아있는 사서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사서 경력 6년으로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하나의 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멋지게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사서만이 아니라 여러 도서관인들이 필요하다고. 현실적인 여건상 여러 실무자가 있을 형편이 되지 않아 사서가 그 역할들을 두루 두루 맡아야 할 경우는 발생할 수 있지만 말이다.

그 여러 역할들 중 말 그대로 사서라는 이름은 여러 자료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소통 및 유통시키고 보급 및 서비스하는 기술력을 두루 두루 겸비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퓨전의 시대에 도서관과 사서가 원칙과 본질의 편에 자유롭게 설 수 있기를 바란다. 

